

# 김유섭 Kim Yusob (b.1959)

학 력	1991 독일 베를린 미술대학(KHB, 구,동베르린) 판화 및 드로잉과 수료 1986-95 독일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 (UdK) 조형예술대학 및 대학원 졸업 (Meisterschueler, Klasse: 볼프강 페트릭, 짐 다인 교수) 1983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경 력	2007-2012 독일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역임(Gastprof. for Painting) 2014-현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교수
개 인 전	2022 "Fundarment II " 60화랑 (서울) 2021 "Floating View -2021' 산수미술관 (광주) 2020 "Members Only", 515갤러리(광주) "Anthropocene" , 소소미술관(화순) "Modern Time", 소아르갤러리(화순) 2019 "Fundarment", 예술공간 집(광주) 2018 "Black Painting", 광주비엔날레기념전,담빛예술창고(담양) 2017 "Floatingview", 갤러리리채(광주) 2016 "New Wave", 갤러리H(현대백화점,서울) 2014 "원초의 풍경-Primal Landscape", 광주시립미술관 "Energy Flash" (with Gerhard Richter) Gallery Schultz Contempory(베를린,독일) 2013 "von Zeit zu Zeit",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전주) 2012 "KimYusob" Kunsthalle Rostock(로스톡,독일) "Energy Fields", Galleri s.e(베르겐,노르웨이) 2011 "Gebanntes Licht' Michael Schultz Gallery(베를린,독일) "Floatingview", MichaelSchultz Gallery(서울) 2010 "Mountain Paradise Zyklus' Galerie CAS, Salzburg,짚츠브르크, 오스트리아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2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 - 광주시립미술관 7인 자문자답 - G&J 갤러리 서울 2019 바람이 지나간 자리.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8 4차산업혁명시대-회화는 무얼 먹고 사나요?, 산수미술관, 광주 2015 창조의 샘(with:故공옥진 정광희)",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2013 Bosphorus Brake, BAP Galleri, 이스탄불 ,터키 2012 Visions of Paradise, Python Gallery, 취리히, 스위스 2011 Transformationen, Galerie Kampl, 뮌헨 2010 Silly Gooses Live in The Dark. UF6 Projects, 베를린 2009 Inside Position, Michael Schultz Gallery, 서울 2008 Close-up, Por Amor a Arte Galeria, 포르토, 포르투갈 hirscheweinundzwanzig, Kunsterverein .코브룩.독일 2007 Salzmond, Kunstraum Klosterkirche, Traunstein.독일 그 외 다수
아 트 페 어	Art NewYork(212) , ArtBerlin. KIAF . Scope London Art Miami . Pulse Miami . ART VIENNA, ART KARLSRUHE 그 외 다수
수 상	KAAD 독일외국학술교류처 조형예술분야 연구기금 (본, 독일 ) 주제: 새로운 회화를 위한 준비- 드로잉에서 비디오까지

## [Artist's Note]

---

*“예술가는 자기 고유의 시선, 즉 자신만의 Perspective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 또 사람들은 그 예술가의 Perspective를 통해 바라보는 순간 즉각 다른 Demention 으로 옮겨 가며 그곳은 다른 차원의 Real 이다.” - A.Tapias*

명멸하는 수많은 이슈와 쏟아지는 개념의 홍수, 치열한 경쟁과 선택 되어진 몇몇 '주류' 미술의 흐름을 눈 여겨 보며 내 그림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확신으로 시작한 것이 '검은그림' 이었다

'검은그림' 시리즈를 통해 회화본질에 대한 성찰과 의미, 그리고 회화표현에 대한 다른 가능성들을 제기하는 시험이었다면 두번째 시리즈는 '검은그림' 뒤에 매달려 마치 '디옥시리보오스(deoxyribose)' 처럼 그림형체를 이루어가는 영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단순히 에너지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영역에 관한 이해와 비어 보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접근으로 빛을 투입하고 쌓아 세상에 보여 지게 만들려고 한다. 헤쳐 나가는 이정표로 For R.( Rembrand)를 세우고 블랙홀처럼 화면에 흡수시켜보는 것이다. 이미 이 시리즈는 '검은그림'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였으나 오랜 시간 작업실 한 칸에서 빛들을 충전시킨 작품 하나에 최종서명을 한 후 그간 '검은 그림'과 다른 개념으로 내보인다.

여기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회화의 기능적 역할을 배제하고 표현한다고 하는 다른 표현형식에 대한 순수함의 추구이고 이것들이 극적으로 화면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스스로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시각적 표현이라는 "경계"에서 아직 우리에게 다가 오지 않은 것들을 대한 접근이다.